

도시 산책을 권장합니다

## "수도의 거리 산책

인사말에서 언급한 대로, 이번에는 새로운 도전으로 수도의 거리 산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는 보통의 건강 관리와 사고 정리 방법으로 로드 자전거와 MTB 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새벽의 새 소리, 매미 울음 소리, 미풍에 얼굴을 맞추며 바다와 산을 돌아다니곤 합니다. 기분 전환, 체력 향상 뿐 아니라 상쾌함과 성취감을 느끼며 생각을 정리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소중한 시간으로 소중히 여깁니다. 메타볼리즘 대책과 아이디어 정리를 동시에 할 수 있어, 바로 수도의 거리 산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건강 방법은 날씨와 시간대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도로가 얼어붙은 날, 밤 등 물리적 제약이 생깁니다. 이 가이드북 작성 중에도 지속적인 메타볼리즘 대책이 필요한 저로서는 대체 대응이 필수이며, 어쩔 수 없이 거리 산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무엇이든지 놓치고 있었던 명소들이 갑자기 시야에 뛰어들어왔습니다. 발을 멈추고 신중하게 관찰하고 싶은 감각, 센다이에 있는 동안에 모든 것을 알고 싶은 감각이 스며들어옵니다. 흥미로운 대상은 끝이 없으며 도보 범위가 확대되고, 점차 도보의 속도에 어떤 말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기분 좋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시중 가이드북에는 등장하지 않는,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명소에도 각각 역사가 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자랑스러운 소중한 장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진을 계기로 '이것을 잊지 않고 기록으로 남기고 센다이 국제 호텔의 고객에게 알리자'는 충동을 받았습니다. 이즈미가닉, 오오히다니가닉, 오모시로산 트레킹, 하카마산, 고헌숲의 설산 하이킹, 타이하쿠산 자연 관찰 숲, 곤고사와지산의 숲, 아오바노모리의 워킹, 니쿠치계곡에서 이와무라이와네을 넘어 산사로 이르는 MTB 투어. 지진 이후 어려워졌지만, 요시가미에서 이와누마 해변을 거쳐 와타리에 이르는 로드 자전거 투어... 나의 센다이 생활 5년 동안 떠올랐던 볼거리들, 꼭 고객들도 체험해 보았으면 하는 수도의 거리 볼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로컬들만이 알 수 있는 곳입니다. 이번에는 투숙객들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내 경험 범위 내에서 호텔에서 직접 걸어갈 수 있는 도시 산책 코스 7 개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건강 관리를 위한 시작일 뿐이니 관광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B 급 명소만 있어서 정말 시간이 많이 남는 한이 없으면 불필요한 코스'라는 비판을 기꺼이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검토를 거친 후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각 코스의 소요 시간의 대략적인 지침은 건강한 사람들을 위한 빠른 걸음으로 제가 걸은 실제 코스 타임입니다."

당연히, 다음은 한국어로 번역한 텍스트입니다:

"보통은 내 가족과 함께 걸은 코스 시간을 참고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맛집 예산과 마찬가지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또한 제작 후에 저희

직원들로부터 이 코스 자체가 꽤 긴 거리라는 (보통과 다른) 지적을 많이 받아, 어려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용할 때는 체력, 시간, 날씨 등을 고려하여 탈출 경로나 택시를 포함한 다른 교통 수단과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건강에는 걷는 것이 최고입니다! 걷는 것으로 수도의 다른 얼굴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걷는 것으로 맛있는 것을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궁극의 향신료 '배고픔'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수도의 거리 산책, 즐겁게 즐기세요!

아키 고사 사원, 대만사, 대년사산 코스

아키 고사

호텔 앞의 동 2 번가 거리를 나가며, 나가마치 방향으로 가다가 카홍신보 사를 지나면 센다이 중앙 경찰서 근처에서 뒤를 돌아보십시오. 벽면에 벽돌로 그려진 거대한 지도. 여기는 무쓰, 오우 주국을 실감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거리를 건너서 명문 오하시 중학교를 오른손에 보고 나아갑니다. 정문 앞에서 거리를 따라 돌아보면 빛 통신의 기원의 지팡이가 눈에 띕니다. 동북 대학의 위업에 감탄합니다! 더 나아가서 히로세 강 위에 걸친 아키오 대교를 건넙니다. 대년사산과 3 개의 철탑을 눈앞에 두고 오른손의 작은 언덕을 비스듬히 오르면 큰 붉은 산문에 나옵니다. 여기서 아키 고사의 본전, 210 단계의 긴 돌계단을 올라갑니다. 양 옆에 이어지는 등롱은 중간부터 불의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이것 또한 지진의 상처입니다. 험험 숨이 차올라갔을 때, 가사키, 히카리와도 함께 떨어지고, 줄인물이 놓여 있는 돌로 된 산문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정면의 로몬이 궁금합니다. 양 옆에는 왼쪽에 갈매기 천사, 오른쪽에 대천사의 나무 동상이 빙작. 일본 최대? 들으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엿보려고 하면 낮에는 격자에 맞춘 유리에 반사되어 꽤 보기 어렵고 명확하게 보려면 내부에 불이 켜지는 황혼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문을 나오면 예배당의 정면에 나옵니다. 두 번 절하고 두 번 손뼉을 치고 한 번 절하고 여기에서 기도하고, 더 오른쪽으로 좁은 길을 가봅시다. 눈 아래에 히로세 강, 이즈미가와 나나즈모리를 배경으로 센다이 시가 펼쳐집니다. 해발 75m 지모치 대용이의 전망 스팟. 센다이 성터에 실증 난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이것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질문이나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먼저 대만사

뒤로 가면 대만사 공양상자에 도착합니다. 여기는 12 지 광장이라고 불리며, 12 지 동상들이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스님과 목어 위에 높이 올라간 아이들. 행운의 글자가 새긴 병에 올라간 뱀, 이상하게도 소는 구리로 만들어져 있고 쓰여진 코 부분만 부드럽게... 이렇게 각각 사랑스럽고 재미있는 모습입니다. 중앙에 연결되는 천생 연결 천세 관세음 보살이

기록된 천생당이 있습니다. 안에는 센다이 지명의 뿌리와 관련된 설도 있는 천생 불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종로당의 반루. 이것은 상당히 뛰어난 것입니다. "나무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자동 종을 치는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 오후 5 시경, 갑자기 작동합니다. 본-본- 약 30 초마다 20 회 정도 종이 어떻게 울리는지 궁금한 분들은 꼭 가까이에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공양상에 절을 하고 동일한 왼쪽 뒤를 돌아보면 8 각당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12 지의 수호불, 천손 관음보살, 고공불, 문수보살, 세지보살, 대일여래, 불동명왕, 보현보살, 아미타불의 8 체의 동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자신의 띠에 따라 절을 하세요.

### 대년사산

이제 여기서 계단을 내려가세요. 내려갔을 때 대만사의 본당을 보면 똑바로 가다가 Koetsu 에서 Yagiyama 방향의 주요 도로에 닿습니다. 좌회전하고 신호를 건너서 계속 직진하면 곧 바로 오르막길과 가드레일이 있는 좁은 포장 도로가 나옵니다. 오르는 것은 약간 힘들지만 땀이 약간 나올 때쯤 테니스 코트를 지나갑니다.

곧 시야가 열리고 대년사 공원 서쪽에 나가면 큰 하얀 철탑이 다가옵니다. 135m, Miyagi TV 방송 TV 탑입니다. 산책로를 따라 가면 지구의 무너진 부분이 나타나며, 위로 올라가면 탑의 정상, 안테나 부분이 북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3.11, 남북의 강한 흔들림 때문입니다. 이 TV 탑은 지진 전에는 다음날 날씨 예보가 맑으면 흰색, 흐린 날은 오렌지, 비나 눈이 오면 녹색으로 조명이 밝혀져 밤 풍경에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현재는 전력 절약을 위해 중단되었습니다.

탑 옆을 지나가면 왼쪽에 나무로 덮인 토벽, Sendai clan 4th clan master, Date Tsunamurai 이후의 Date 가의 묘소입니다. 정면에서 철장의 문을 엿보면 묘비가 지진으로 넘어지고 각각 다시 조립하는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묘소를 한 바퀴 돌면 나무 사이로 Sendai 시가 경치가 펼쳐집니다.

잔디로 덮인 고지로 나아가면 지붕이 달린 휴식 공간. 멀리 태평양, 아라하마에서 Yagiyama, Iwanuma 의 연안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모양이 보이지 않고 연안을 덮고 있던 방해물이었으나 완전히 없어져 마치 빗으로 치면 잘려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해일대 초고위의 손톱 자국이 보기 아프다.

또한 안쪽으로, 오른쪽에 우거진 덤불 속에 가끔 보지 못할 수도 있는 "전진"이라는 글자, Kahoku Shimbun, 2nd president, Sendai city honorary citizen, Ichiro Ichiro 의 위업을 찬양한 비석이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버스 터미널을 지나면 NHK Sendai 방송국, Tohoku 방송, Tohoku 방송의 3 사 공동 TV 탑, 150m, 2001 년에 새롭게 세워져 회색으로 칠해진 새로운 건축물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조명이 없습니다.

이것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질문이나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 센다이 도시 야생화원

오른쪽에 센다이 도시 야생화원이 있습니다. 1954년 개원한 이 도시 야생화원은 대년사산 북쪽 경사면, 넓은 95,000 m<sup>2</sup>의 공원에서 산책 및 야생화와 접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손을 많이 대지 않았지만, 편백 숲, 솔 숲, 상수리 숲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북 지방의 고산부터 해안까지 자생하는 대표적인 식물이 심어져 있습니다. 센다이 시 꽃인 홉은 14종이 있으며 홉 터널도 있습니다. 개원 기간은 3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계절의 야생화의 변화를 느끼면서 산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곤한 경우에는 버스를 이용하여 탈출할 수 있습니다. 센다이 역 방향은 대략 1시간마다 2대 정도 운행됩니다. 출발 시간을 미리 확인하고 야생화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다시 오르기에 도전하세요

이제 건강한 다리는 더 깊이 들어갈 준비를 하십시오. 그 이후에 오렌지와 하얀색으로 칠해진 탑이 나옵니다. 센다이 방송과 Date FM의 무전 탑이며 높이는 125m입니다. 조명이 켜질 때마다 1시간마다 조명이 변하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이 3개의 무전 탑과 Yagiyama의 Tohoku 방송 120m을 추가한 4개의 TV 탑 조명은 센다이의 야경을 아름답게 표현하며, 신칸센의 차 안에서 볼 수 있는 센다이 도착 랜드마크로 여겨져 센다이 도시 풍경 대상에서 10회를 수상했습니다.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센다이 방송 무전 탑을 지나가면 즉시 Tohoku 공업 대학교 낮은 마을 캠퍼스의 내부 도로로 들어갑니다. 대년사산의 남쪽 경사면, Yagiyama, 낮은 마을 방향, 멀리 태평양을 내려다보는 기분 좋은 하강이 따릅니다. 대학교 구역을 나와 좌회전한 다음, 조제 약국 모퉁이를 좌회전하여 수로 가장자리의 길을 따라 나가고, 이발관을 좌회전하여 3개의 TV 탑을 좌측에 두고 국도 286호로 좌회전하여 대년사산을 둘러싸십시오. 인도를 조금 이동하면 대년사의 안내판이 나옵니다. 여기서 좌회전하고 급한 경사를 올라가 대년사 총문에 들어갑니다. 이 시점에서 단말, 275단의 긴 계단을 오르십시오.

마침내 오르기가 끝났을 때 "전진"의 비석에 나옵니다. 미야기 TV 탑 앞에서 왼쪽으로 들어가 여기서는 돌아가십시오. 대만사虛空堂尊까지의 계단 185개가 마지막 오르기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는 겨울이 좋습니다. 대년사산에서 돌아가는 길에 종소리 소리를 듣고, 등대에 비추어진 대만사虛空堂尊까지의 계단을 오르면 환상적인 야경과 매력적인 황혼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계단을 세 번 오르고 내리는 높이 차이가 300m 이상인 변화가 풍부한 나의 강력한 추천 코스입니다.

예상 시간

평균 보통인 기간: 205 분

건강한 기간: 120 분

※ 야생화원 탐색 시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센다이 성지에서 Yagiyama 코스

먼저 Zuiho-do

호텔에서 도시안으로 건너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막차에 도달합니다. 우센호텔 측면을 따라가면 북아카초 교차로에 도달합니다. 앞에 큰 "물고기" 글자가 보이며, Jimochee 에게 사랑받는 신선한 생선 가게 "Asahiya Sato Main Store"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댄스 의상 가게로 돌아갑니다. 왼쪽에는 Tohoku 대학교 Katahira 캠퍼스가 있으며, 오른쪽에는 금속 재료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블루 산과 함께 동북의 뇌를 모은 곳입니다. T 자

센다이 성터로 오르다

센다이 성터로 돌아가려면 먼저 평정강다리를 다시 건너고, 센다이 성의 천연 절벽을 왼쪽에 두고 야구장을 오른쪽에 두며 내려가서 다시 오르십시오. 신호 있는 T 자 모퉁이를 건너 후, 와가시의 명점 "모리노카 호전과" 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메밀집 모퉁이를 돌아 몇 걸음 가면 히로세강에 건너는 대교에 도착합니다.

여기에서 히로세강을 건너보고 도시의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어쩌면 정약용의 "아오바조코이우타"를 흥얼거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강에서 바람이 부는 것은 기분 좋습니다. 이 대교는 지진 시에 금속 가로등이 많이 쓰러진 참사였습니다.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그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면 신호등에 도착합니다. 센다이 시 박물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삼의 원의 연못, 피겨 스케이트의 발상지로 여겨지는 고시로무와 나가노. 이전에는 센다이 성터로 가는 주요 도로였지만 중간의 돌담이 붕괴되어 현재는 보행자 전용입니다. 도로를 오르기 시작하면 양쪽의 스키 나무가 기분 좋습니다. 그러나 비닐 시트로 덮인 돌담, 큰 부대로 쌓인 터포, 출입 금지의 울타리가 눈에 띄입니다. 그 사이를 통과하여 사와문 흔적에 도달합니다. 센다이 시 박물관 뒷길로 들어가는 코스가 여기에 나옵니다. 양쪽의 돌등등은 지진 시에 모자 위의 와라비 손 부분이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오르기. 최종 코너를 오른쪽으로 돌면 다시 부서진 등등등을 만납니다. 왼쪽에는 센다이성 본마루의

돌담이 높이 솟아 있습니다. 만약 붕괴할 경우를 대비하여 현재 보도 부분은 통행이 불가능하며 닿을 수 없습니다.

잠시 후, 미야기 고국 신사의 은색 대토리에 도달합니다. 센다이 성터의 입구입니다. 이전에는 시내 주변 버스 루프의 버스 정류장으로 관광객이 줄을 서서 기다렸던 곳입니다. 현재는 여기에서부터 통행이 중지되었으므로 버스 정류장은 서쪽의 아즈키색 대토리 옆이됩니다.

토리를 통과하고 마침내 센다이 성터로, 센다이에서 가장 뛰어난 전망대입니다. 멀리서 선비 언덕, 이즈미가다케, 나나즈모리의 산들부터 동쪽으로 펼쳐진 태평양까지 센다이 시가 조망됩니다.

표준 사진 촬영 장소 "이다치 마사무네

#### 양말 산토끼는 간다

양말 산토끼는 간다 노래가 머릿속에 울려 퍼지면서 왼쪽 펜스 너머에 물러 코스터가 보입니다. 이 노래는 과연 무엇일까요? 모르는 사람들은 뒤처지게 되는데요, 이 노래는 1960년대 후반, 경제 성장의 시대에 빠져들게 만드는 '야키야키야안, 야기산의 베니랜드에서 큰 꿈이...'의 주제 노래입니다. 심지어 대체 가사도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확인해보세요.

이 베니랜드는 1968년에 오픈한, 동북지역 최초의 종합 놀이동산입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4월 중순에는 공원 안 곳곳에 핀 벚꽃들이 환상적입니다.

오른쪽에 위치한 '센다이야기산 동물원'은 어린이들을 위한 장소로 생각되지만, 어른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고전적인 원숭이 동산에는 미끄럼틀, 회전목마, 로프 등 공원처럼 놀이기구가 마련되어 있고, 원숭이들에게 먹이 주기도 재미있습니다. 별도의 먹이는 자동 판매기에서 100엔에 판매되며, 원숭이와 놀다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마음을 편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대머리 독수리와 매 등의 맹금류에 먹이 주기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동물 관리자의 업무이지만, 20일권을 통째로 방출합니다. 발톱으로 누르고 가죽을 찢어내고, 내장을 뽑아내며 내장에서 먹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야생의 힘에 압도되는 모습! 본능 그대로 탐욕스러운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먹방의 원점일까요?

이외에도 사자, 호랑이, 북극곰 등 동물 관리 체계가 현대적인 건물이 갖춰져 있어 유리를 많이 사용하여 수중의 모습이나 더 가까이에서 생태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안내도에서 베이블 루스(독일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의 동상을 찾아보세요. 야기산에? 무슨 얘기죠? 물어보면 이곳이 예전에 야구장이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1934년 미일 야구에서 베이블 루스가 일본 최초의 홈런 1호, 2호를 기록한 곳입니다. 동상 옆에 "이곳이 일본 최초의 홈런이 떨어진 장소입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점점의 활동을 하면 시간이 얼마든지 소비될 것 같습니다.

이제 동물원에서 피곤했을 경우, 여기서 탈출하세요. 여기서부터 센다이 역 방향으로 1 시간에 3~4 대의 버스가 있습니다.

#### 한 발 더

건강한 다리로 계속 따라 주세요. 베니랜드를 왼쪽으로 보면 보도를 따라 나아갑니다. 곧 삼각대가 나오는데, 이곳은 동북 방송 본사입니다. 이 삼각대는 지진 이전에 위층이 파란색, 중층이 오렌지색, 하층이 녹색으로 조명이 밝혔던 곳입니다.

삼각대 밑에는 "왓칭발"이라는 이름으로 벼, 야채, 꽃이 재배되어 현지 방송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주변도 벚꽃 시즌 동안의 시야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아가 주세요. 왼쪽

소요 시간의 예상: 일반인 및 건강한 다리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호텔에서 평정강 다리까지: 35 분 / 건강한 다리: 20 분

평정강 다리에서 대문 옆 작은 망루까지: 30 분 / 건강한 다리: 15 분

대문 옆 작은 망루에서 센다이 성터까지: 20 분 / 건강한 다리: 10 분

센다이 성터에서 야기산 동물원까지: 30 분 / 건강한 다리: 15 분

야기산 동물원에서 무죄 2 동까지: 45 분 / 건강한 다리: 25 분

무죄 2 동에서 레이야아래까지: 20 분 / 건강한 다리: 10 분

레이야아래에서 호텔까지: 30 분 / 건강한 다리: 15 분

전체 여행 소요 시간: 210 분 / 건강한 다리: 110 분

※ 이 시간에는 미즈호우 덴, 센다이성터, 야기산 동물원, 베니랜드 등의 탐방 시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테이산젠도오리, 오사키하치만구, 가메오카하치만구, 아오야마 주유 코스

먼저 아케이드 거리로 이동합니다.

히가시니반쵸도오리를 도시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난치도오리를 건너서 아오야마 도오리로 이동합니다. 이동하면 오른쪽에 77 은행 본점, 지하도로를 건너서 6 번 출구로 나오면 Gucci 가 있는 퍼스트 타워 빌딩 쪽입니다. 아케이드 거리 마블로드 오오마치에 들어갑니다. 센다이의 대표적인 거리로, 탄사바요로 카자리와도 되며, 세븐스 니무르아 하카리와도 되는 곳입니다.



잠시 가다 왼쪽에 루이 비통과 로에베의 쇼윈도가 보이면 후지사키 백화점입니다.

아마도 이미 주목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오우슈국에서는 신문은 카후코 신보, 은행은 77 은행, 백화점은 후지사키가 표준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매년 새해 상품을 사기 위해 긴 줄이 서지요.

#### 센다이의 새해

센다이의 새해는 옛 센다이한 내에서 전해온 전통적인 행사입니다. 이것은 에도 시대부터 시작된 상업 습관으로, 전국에서 인정받아 특례로 다른 지역보다 화려한 상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세보와 함께 일본 전국에서 유명합니다.

백화점의 새해 상품 판매는 일반적이지만, 센다이는 특별하며 규모와 혜택 모두에 있어 단연코 강세입니다. 1월 2일 새벽

아케이드 거리를 넘어 도시 전체가 활기찬 분위기로 감싸집니다. 센다이 상인들의 기운! 2만 엔의 럭키백에는 50만 엔을 웃돌 수 있게끔 들어 있을 정도로, 신경 쓰는 그룹이 바로 나타납니다. 신칸센 비용과 숙박비를 고려해도 이득이 많은 "도노즈쿠 미즈케, 덴토우테키 엔터테イメント"은 한번 보기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후지사키를 돌아 오른쪽으로 돌면 "ブランドームイチバンチョウ"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거리는 빛의 퍼레이드를 맞이하면 나무와 다양한 조명으로 장식됩니다. 왼쪽에는 차 가게의 오래된 가게 "이가타 혼텐"이 있습니다. 여기도 새해 상품 때 차 상자를 구하기 위한 긴 줄이 서지요. 곧 히로세 도오리에 다다릅니다.

#### 센다이적 카오스

오른쪽의 포라스는 유행에 민감한 젊은층을 위한 패션 건물입니다. 오우슈국을 경시하지 마십시오. 유럽을 중심으로 확장하고 도쿄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신진 브랜드 'Desigual'의 안테나 샵도 들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히로세 도오리를 건너 첫 맨치 4초메의 아케이드 통로로 들어갑니다. 왼쪽에는 드러그 스토어, 패찌노코

#### 정禪사 길

골목길을 지나 고객에게는 국가적인 백화점, 미쓰를 보고, 잠시 후에 정저사 거리입니다. 폭 46m의 중앙 분리대는 산책로로 되어 있으며, 보도 쪽을 포함하여 총 4줄의 웅장한 자작나무가 약 600m에 걸쳐 있으며 杜の都의 상징이다.

12월의 빛의 페이지 및 9월의 재즈 페스티벌 외에도, 칠석, 아오바 마츠리 등 다양한 이벤트에서 거리 공연 및 퍼레이드의 무대로 사용됩니다.

특히 5월, 신록의 계절은 훌륭합니다. 상쾌한 바람과 눈부신 녹색에서 넘쳐나는 빛, 행복한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돌아 서쪽으로 이동하여, 코쿠분초 도오리를 건너고, 세츠코마마의 가게나, 완슈이 도오리를 건너 피자의 명점 "나프레", 지모치 전용 스위트 "아마자" 등을 보면서 서쪽 공원 도오리로 이동합니다.

반대쪽 보도로 건너가 건축 디자인으로 유명한 센다이시 문화 시설 인 미디어 테이크 등을 둘러보면서 산책이 일반적입니다. 杜の都 입문에는 전통적인 관광 코스입니다.

### 오사키 하치만 궁

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조금 더 깊숙히 들어가 봅시다. 서쪽 공원 도오리를 따라 북쪽으로 향합니다.

오른쪽에 과자 가게 "매차영"이 있고 더 나아가면 왼쪽에 파인테크 빌딩 2 층, 오하기와 오신코의 가게 "타치바나"와 생각했지만 지진 이후 폐점, 아쉽습니다!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큰 교차로의 큰 교차로, 기타 4 반마치 도오리에 다다릅니다. 앞에는 도호쿠 대학 의학부 부속 병원, 도호쿠 발 세계적인 의학 연구의 발신지입니다. 이곳에서 왼쪽으로 돌아가면 왼쪽에 지모치 전용 햄버거 "레스토랑 하세쿠라"를 보면 단순히 직진하면 됩니다. 곧 오른쪽에 큰 대문이 나옵니다. 국보 대오사키 하치만 궁. 대문을 통과하면 여기에서도 지진의 영향으로 돌담의 큰 등대가 붕괴되었습니다. 97 계단의 돌 계단을 오르는 동안 등대의 붕괴를 보게됩니다. 세 번째 대문을 통과하고 넓고 숲에 둘러싸인 쾌적한 본사로 향합니다. "눈높이"라고 불리는 중요한 문을 통해 국보 지정 본당에 들어갑니다. 화려하고 화려한 모모야마 양식, 니콘 동쇠 부에 이어지는 고풍 조형의 현존하는 최고의 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拜殿 내부에는 사쿠마 쪽 화가인 사쿠마 사교의 작품으로 여겨지는 방벽화 및 격자 천장에 초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지붕 주변은 平成 12년부터 대규모 보존 및 복원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와 지붕이라고 불리는 목재 얇은 판을 합쳐 만든 지붕, 곳곳에

### 더 나아가서 아오바야마로

잘 번 돈 위치 에너지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오르막길을 추가해 봅시다. 오른쪽에는 나리타산과 센다이 무가옥의 간판이 보입니다. 조금 이곳에서 돌아본다면 나리타산 센다이 지점에 오시면 "일본에서 가장 높은 오불담상, 일본에서 가장 큰 불동명왕"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는 불동명왕 좌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무기, 디오라마, 예술품 전시까지 모든 것을 갖춘 센다이 무가옥은 현재 지진의 영향으로 폐관 중이라 안타깝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토호쿠 대학교 이과대학 뒷면, 콘크리트 벽을 왼쪽으로 보면 어딘가에서 숙성된 부르고뉴 향이 나네요? 실체는 토호쿠 대학교 마구조의 마구집입니다. 창문에서 머리를 내밀고 있는 말도 몇 마리 보입니다. 잠시 후에 T자로 이동하여 왼쪽으로 돌아가 정보부, 정보과학 연구과를 돌아 횡단보도로 나옵니다. 똑바로 가면 토호쿠 대학교 카와치

캠퍼스를 거쳐 히로세강 방향이지만, 여기서 오른쪽으로 돌아가 공학부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넓고 상쾌한 단풍길을 따라 세계에 발신하는 일본의 두뇌 집결지를 걸어봅시다. 토호쿠 대학교 식물원의 아오바야마 게이트를 통과하여 어느새 센다이성 지 경후의 주차장에 도착합니다.

소요 시간 대략 안내: 일반 - 건강한 미각

호텔 ~ 정선사 거리 ~ 서공원 40 분 25 분

정선사 거리 서공원 ~ 오사키 하치만 40 분 25 분

오사키 하치만 ~ 미키사와 20 분 10 분

미키사와 ~ 가메오카 하치만 20 분 10 분

가메오카 하치만 ~ 나리타산 10 분 5 분

나리타산 ~ 토호쿠 대학교 아오바 캠퍼스 20 분 10 분

토호쿠 대학교 아오바 캠퍼스 ~ 센다이성 지 경 후 40 분 25 분

센다이성 지 경 후 ~ 호텔 50 분 30 분

총 소요 시간 240 분 140 분

※ 미키사와 하치만, 미키사와 전기 백년관, 가메오카 하치만, 나리타산, 센다이성 지 경 등의 산책 시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쇼구 이유야마, 기타 센다이, 기타야마 5 산 코스

도쇼구 이유야마

호텔에서 센다이 역의 피드웨이 데크로 가고, 팔코의 왼쪽을 지나 에스케이케이 비즈니스 스쿨을 지나 큰 간판의 히로세 도오리를 건너세요. 그냥 보도로 내려와 직진하십시오. 왼쪽 약간 앞쪽에서 보이는 높은 건물은 토호쿠 전력 본사입니다. 에스케이비 센다이 국제 뷰티 스파 학교의 큰 간판이 있는 정선사 거리와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미야마치 도오리로 이동합니다. 왼쪽으로 돌아가면 직진만 하면 됩니다. 기타 4 반마치 도오리, 기타 6 반마치 도오리를 건너고 돌아가 JR 센산 선을 건너면 돌담으로 만든 대문, 센다이 토오쿠 마치입니다. 1654 년 다테 판 이대 판주 다테 타다무네가 토쿠가와 이에야스를 모신다. 토쿠가와 이에야스를 언급하면 니코우와 달리지만, 놀랍게도 센다이에도 있습니다. 여기서 토왕지, 나리타산, 센다이 기타지, 센다이 긴자, 산사 축제 등이 있습니다. 오우코우지로 보는 아름다운 가로수길입니다. 뒷길의 양 옆에 가득 핀 벚꽃은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벚나무 계절에 꼭 봐야 하는 것! 도로의 양 옆을 가득

복산 오산

복산 오산은 복산 언덕에 위치한 다섯 개의 사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는 센다이성의

귀문을 지키는 뜻 외에도 오우 코우 도, 네 바이로쿠 스톤 도로의 관문으로 성중 마을의 북쪽 방어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다섯 개의 산을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역사적 변천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우미요우 젠지, 토오쇼우 지, 카쿠하쿤 젠지, 시후쿠 젠지, 미고 묘지를 포함한 다섯 개의 사원을 다니려고 합니다.

#### 코우미요우 젠지

도로를 따라가면 오른쪽에 여러 신사와 절들이 나옵니다. 먼저 코우미요우 젠지입니다. 입구 옆에는 시구라 츠네나가의 묘소가 있으며 이것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문을 지나 본당 왼쪽으로 나가면 시구라 츠네나가의 묘소가 있습니다. 돌을 쌓아놓은 간결한 것입니다. 그의 노년의 열등감이 떠오릅니다. 그 옆에는 로마와 동행한 소테로의 묘지도 있습니다. 시구라 츠네나가의 묘소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며 이외에도 가와사키 마치, 오사키 마치, 미야기현 내에 3 군데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 토오쇼우 지

더 나아가면 토오쇼우 지, 13 세기에 이다치군에 창건된 역사 있는 절입니다. 이전을 반복하면서 1600 년에 센다이성을 건립할 때 북산으로 옮겨왔습니다. 절지로서 300 구를 주어 센다이한이 정한 최고의 절격을 가졌습니다. 메이지 시대에는 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옆의 아오바 신사에 내지의 서반분을 양도합니다. 무슨 일인지 이다치한의 위권의 변영과 쇠퇴를 그린 듯한가요? 센다이의 관광 명소에는 이 패턴이 많습니다. 화재에 시달려 현재의 본당은 메이지 시대 이후의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본당 오른쪽 뒤의 큰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마루미가야(Kayamugiya) 라는 가지로 일반적으로 카야(Kaya)의 열매는 타원형이지만, 이것은 둥글게 열매를 맺는 특별한 나무입니다. 국가 지정 천연 기념물입니다.

#### 아오바 신사

옆에는 아오바 신사가 있으며 돌로 된 대문이 무너지고 길은 균열이 나 있습니다. 등대는 돌로, 구리로 모두 붕괴된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돌단, 절지의 접근, 양쪽의 우뚝 솟은 나무 등은 웅장하고 단단한 모습을 보입니다. 본래 센다이성 안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진 아오바 신사입니다. 센다이의 다섯 대 축제 중 하나인 아오바 축제는 이 신사의 봄 대 축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현재의 신사장은 센다이한 가문의 가문으로 있는 16 대 당주입니다... 여러 개의 역사적인 의견들이 하나 둘 등장합니다. 게임 "전국 BASARA"의 히트로 인해 등장인물 카타쿠라 코죠우로의 후손을 만나러 이 신사를 방문하는 역사 팬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오바 신사를 무시하지 마세요! 여기도 벚꽃 명소입니다.

#### 카쿠하쿤 젠지

토오야마 카쿠하쿤 겐지의 옆에는 다시 한 번 무시할 수 없는 이다치한 창건의 역사 있는 절인 보호석에도 바닥의 양쪽에서 사랑스러운 달마를 통과하면 멋진 입모양의 지붕이 눈에 띕니다. 백색 벽은 새로운 강철 콘크리트 구조일까요? 이 근처는 1876 년의 북산 대화로 인해 대부분이 소실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본당 왼쪽 뒤에는 이다치한 이익궁 호쇼인 그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의 옆에는 이다치한의 아들 마사나리와 관련된 호쇼인 호쇼인(의공주)과의 갈등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 이상의

기묘한 겐사이로 돌아와 다음에 방문할 곳은 자운산 자복선사입니다. 양쪽에 울창한 나무와 돌단에 도착합니다. 올라가면 덮인 나무와 돌단도 나타나서 걸어다니기 어렵습니다. 이곳은 센다이의 수국화 절입니다. 7 월 초순에는 절 내부를 수국이 가득 피워서 많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계절에 맞춰 꼭 방문해야 할 명소입니다.

## 리왕사

그리고 나서는 리왕사를 방문합니다. 검은 울타리 모양의 대문 옆에는 분조 세네즈구 자이로쿤 님 묘소와 정부 애비묘 묘소가 있습니다. 이곳도 다테 가문과 관련이 깊어 보입니다. 1441 년 창건되어 다테 가문의 거쳐 이동과 함께 여러 번 이전을 했으며 현재 위치로는 1602 년에 다테 마사무네에 의해 이전되었다고 합니다. 산문으로 된 대문으로 모든 역사를 사용하고 전체가 지붕이 있는 지붕과 대문 양쪽에는 류오우 봉사들이 찾고 있습니다. 낡았지만 뭔가 위엄을 느낍니다. 북산 대화에서도 남아 있습니다. 센다이 시 지정 중요 문화재입니다. 돌길이 있는 길로 들어가면 이전의 사진에서는 플랫폼한 솔나무로 아름답게 지어졌지만 현재는 리디자인되어 양쪽에 13 개의 석상이 있습니다. 아미다 불, 보현 보살 등 대만사보다 5 개 더 많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 본당이 있습니다. 대화로 인해 소실되었으며, 메이지 9 년에 재건되었습니다. 본당 오른쪽에 정원 안내도를 찾았습니다. 회전 문으로 300 엔을 넣고 입장합니다. 연못을 중심으로 석등, 다리, 다도 등을 갖춘 로맨틱한 일본 정원입니다. 왼쪽에는 삼중 탑도 있습니다. 4 월 말에서 5 월 초까지 벚꽃, 5 월 말에서 6 월까지 트츠지, 6 월 말에서 7 월 초까지 아히코, 6 월에서 8 월까지 수선, 10 월 중순에서 11 월에 단풍이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연못에는 잉어가 기르고 있으며 사람이 다가가면 입을 헤벌어놓고 가까이 오게 됩니다. 먹이는 회전문에서 100 엔에 팔고 있습니다. 계절에 맞춰 산책을 즐기세요. 이 북산 다섯 개의 사원 모두 100 개 정도의 돌 단을 오르내립니다. 흥미로운 것은 푸른 잎 신사를 포함하면 약 600 단의 계단을 오르내리게 됩니다. 그럼 이 근처에서 충분히 느끼셨으니 리왕사를 우회하면 JR 북산 역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 건강한 다리로 도보로

흥분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오바 신사로 돌아가고 아오바 신사 거리를 우회하면 도로를

돌아가고 역에 돌아오게 됩니다. 아오바 거리는 정선사 거리를 넘어 나가치마치 거리로 이름을 바꿉니다. 북로쿠반쵸 거리를 건너 골목 건너 들어가면 요 체크 포인트입니다. 담바키에서 왼쪽으로 돌면 지모치 (JIMOTI) 미용 케이크 가게 "바냐"가 있습니다. 바게트나 캄파놀로 뿐만 아니라 라이바인, 호두, 건포도, 무화과 등이 들어간 멜랑젤류와 같은 것들. 그 어느 것도 무겁고, 솔직한 맛이 있습니다. 유럽식 빵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빠져들 수 없는 제품입니다. 토요일과 월요일에만 판매되는 치즈 케이크. 수요일과 목요일에만 판매되는 슈틀렌도 증독성 있습니다. 혹토리의 "오 풀니 르 듀 보와", 현청 뒤의 "르 탕 리슈"와 함께 건설중인 도의 수의 빵집을 소란스럽게 만듭니다. 나만의 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다음으로 가야합니다. 아오바 신사로 돌아가서 아오바 신사 거리를 오른쪽으로 돌면 JR 복산 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 요양 슈정고야도

#### 미야기노 거리

이제 박물관에서 나와 원래 온 센다이 역 쪽으로, 요요기 제르나를 오른손에 본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미야기노 거리로 이동합니다. 이 거리는 센다이 역 앞에서 크리넥스 스타디움 미야기 방향으로 1.6km, 역 동쪽 출구의 중심이자 대도로입니다. 1990 년에 전선 공용되어 현재도 개발이 계속되는 센다이 역 동쪽 출구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양쪽 보도와 중앙 분리대에느느 케야키 나무가 있습니다. 넓은 보도에는 작은 물길, 분수, 기념물 등이 마련되어 공원처럼 관리되고 있습니다. 땅 밑에는 미야기노를 찬가한 시를 새기는 대리석이 가워져 있습니다. 최근에 진홍색 자전거 도로도 개설되었으며, 래커닝 이글로드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정선사 거리와는 느낌이 다른 즐거운 산책이 가능합니다.

#### 류가오크 텐만구

류가오크 4 번거리에서 큰 도로를 건너 자은지를 왼쪽으로, 미니스톱을 오른쪽으로 돌면 도시의 신 텐진, 류가오크 텐만구입니다. 양쪽에 멋진 콤파 개가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동쪽이 음(오)이고 서쪽이 아(아)입니다. 돌단을 오르고, 대문을 통과합니다. 경내 주위에는 와가와 하이쿠를 지은 비석이 놓여 있습니다. 본당으로 향하는 도중에 오른손에 만지소(무당소). 모든 성지님, 이 소를 만져서 슈칸 도마 신공의 덕을 찬양해주시시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돌 조각은 코 부분이 매끄럽습니다. 이번에는 입수없이 수염을 기른 콤파 개가 맞이합니다. 구리 판 대지봉의 복잡한 구조, 주홍색 탕문은 시 지정 등록 문화재입니다. 통과한 정면이 본당입니다. 양쪽에는 다수의 현마가 봉납되어 있습니다. 동북에서는 학문의 신님, 수험생의 성지입니다. 센다이에서 가장 빨리 피는 매화도 유명합니다.

## 류가오크 공원

류가오크 텐만구의 산도를 나와 왼쪽으로 나가면 곧이어 류가오크 공원에 나옵니다. 17세기 후반, 센다이 관 4대 관주 다테 츠나무라가 교토에서 가져온 약 1000그루의 연분홍을 이곳에 심었다고 하는 꽃놀이 명소입니다. 현재는 연분홍을 중심으로 소메이요시노, 야에요시노, 히간사쿠라 등 약 370그루가 심어져 흰색, 연한 분홍, 분홍색의 경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공원 내에는 풀밭 광장을 중심으로 육상 경기 코스, 분수, 자유 광장 등이 마련되어 센다이 시민의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흰색 건물은 옛 일본 육군 제2사단 보병 제4연대 병사숙소, 현지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로 건조된 서양식 건축물입니다. 목조 2층 건물, 불박이 지붕, 벽은 석회로 칠해져 있으며 건물의 모서리에는 돌로 만든 장식, 유리로 되어 있는 승강 창문 및 서양식 원형 기둥 현관 등이 특징입니다. 현재는 센다이 시 역사 민속 자료관이 되어 있습니다. 입장료는 200엔입니다. 전시실에는 4연대 숙소를 재현한 코너, 농촌 주방, 마당의 등을 재현한 부분, 아가리 모노 가게를 재현한 마치바의 삶 코너 등, 19세기 이후의 민속 변천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센다이의 고지도를 모은 기획 전시회 등도 진행되었습니다.

## 미야기노 공원 종합 운동장

이제 역사 민속 자료관에서 나오면 왼쪽으로, 류가오크 공원 동쪽 출구에 나옵니다. 거리

## 孝勝寺

박물관 바로 옆 도로로 나와 센다이 역 쪽으로 가십시오. 이 지역은 신절이라고 하는 지명처럼, 센다이 개편 초기부터 이어진 큰 사원의 집합 지역입니다. 성의 귀신문에 해당하며, 많은 절들이 모여 절마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큰 도로를 건너면 오른쪽에 孝勝寺(고우슈)의 입구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려면 조금 더 가서 신호등에서 우회전하여 東九番町通り를 돌아가야 합니다.

참배로 서 있습니다. 양쪽에 돌등불, 중앙에 위풍당당한 산문, 왼쪽에는 멋진 다섯 층의 탑이 솟아 있으며, 끊임없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산문을 통과하고 정면의 본당에서는 지진 복구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다섯 층의 탑과 본당 사이에는 석가당이 있습니다.

13세기 말, 대선사(大仙寺)로 설립되었습니다. 다테 마사무네도 종종 이 사원에서 기원하고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 사원은 후에 온승사(全勝寺)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이후 2대 관주 다테 타다모리(全勝寺, 1543년 ~ 1587년)에 의해 제연승사(善勝寺)로, 3대 관주 다테

즈나모리(善勝寺, 1566년 ~ 1628년)에 의해 孝勝寺(こうしょうじ)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2대 관주의 정부 측청 희(振姫)와 3대 관주의 우부 측청 희(振姫)는 4대 관주 다테 즈나무라(伊達綱村)의 어머니인 산사와 초(初子)가 되어 이후 센다이 관의 두터운 보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로 산사와 관련되어 있군요.

17세기 말, 다테 즈나무라(伊達綱村)가 산사와 어머니 산사와 초(初子)의 복원을 위해 세운 석가당은 센다이 시 등록 문화재입니다. 옆에 산사와 초(初子)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정치가의 무덤은 孝勝寺가 관리하는 토지입니다.

중앙에 지붕이 달린 향로 옆. 본당을 향해 가든, 다섯 층의 탑을 향해 가든, 남 명법연화경을 읽으십시오. 무량한 공덕을 받으십시오. 여기서 기도하고 나가십시오.

산문을 나와 계속 직진하면 센다이 역까지 가까워집니다.

예상 시간:

호텔 ~ 안쁜맨 박물관: 25 분 (일반), 15 분 (건강한 다리)

안쁜맨 박물관 ~ 르가오카 텐만구: 20 분 (일반), 15 분 (건강한 다리)

류가오카 텐만구 ~ 르가오카 공원 (역사 민속 자료관): 15 분 (일반), 10 분 (건강한 다리)

류가오카 공원 ~ 미야기노 공원 종합 운동장: 13 분 (일반), 8 분 (건강한 다리)

미야기노 공원 종합 운동장 ~ 정택의 무덤: 30 분 (일반), 20 분 (건강한 다리)

정택의 무덤 ~ 孝勝寺: 12 분 (일반), 7 분 (건강한 다리)

孝勝寺 ~ 호텔: 25 분 (일반), 15 분 (건강한 다리)

총 소요 시간: 140 분 (일반), 90 분 (건강한 다리)

※ 이 시간에는 안쁜맨 어린이 박물관, 르가오카 텐만구, 르가오카 공원, 미야기노 공원 종합 운동장, 정택의 무덤, 孝勝寺를 탐험하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히로세강에서 무슨 국분사, 렌보코지 골목

히로세강변 산책로

동이방마치 通 (東二番町通り)를 다이넨지야마로 방향으로 가십시오. 아타고 오타카마스지(愛宕大橋) 앞에서 왼

한국어 번역:

카와라마치로 가기

그럼, 히로세 다리로 돌아가 봅시다.

피곤한 분들은 히로세 다리를 건너지 않고 오른쪽으로 나가서 나가치 마치 방향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시립 지하철 나가마치 이치초메 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건강한 다리분들은 따라와주세요. 히로세 다리를 건너 왼쪽으로 고속도로에 따라



이동합니다. 얼마간 진행하면 왼쪽에 트윈 타워 아파트가 나옵니다. 그 신호에서 도로를 반대편인 77 은행 쪽으로 건너면 카와라마치 상점가입니다. 여기로 이동합니다. 담배 가게 모퉁이를 왼쪽으로 돌아 나가 주요 도로로 나옵니다. 대각선 왼쪽에 지모치의 케이크 가게 "아망디에"가 있습니다. 카페 코너도 있어 가벼운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 무스코쿠 분지 사원

이번에는 이 큰 도로를 오른쪽으로 돌릴 것입니다. 조금 먼 곳이지만 무스코쿠 분지 사원을 목표로 합니다. 도로를 따라 가면 새로운 간선을 통과하고, 대각선 왼쪽으로 튀면 JR 철도 횡단을 건너게 됩니다. 잠시 좁은 길의 주택가 산책에 참여해 주세요. 중간에 문화마치, 60 인 마을, 300 인 마을과 같은 이상한 이름의 마을들을 지나게 됩니다. 문화마치는 확실하지 않지만, 60 인 마을은 막세기에 야정 60 명이 살았던 마을로, 300 인 마을은 다테 마사무네의 시대에 총 300 명의 탄재 야정이 살았던 곳에서 기원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디까지 나가보죠. 정면에 있는 채소 가게가 있는 T자로 나올 때 왼쪽으로 돌아가, 계속해서 도로로 나가, 첫 번째 신호의 키노시타 이치초메 교차로를 오른쪽으로 돌려 넓은 도로로 나옵니다. 왼쪽에 성 우르스라 학원을 보며 나가주세요. 왼쪽에 무성한 나무들이 보입니다. 어떤 역사적인 분위기의 게이트입니다. 정면에 짙으로 만든 큰 율래짜이 걸려 있습니다. 무스코쿠 분지 사원입니다. 설립은 8 세기 중반으로, 정감 지진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번 화재로 인해 당시의 건물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메탈로 트이는 지붕의 데바라, 약사당은 17 세기 초에 다테 마사무네에 의해 재건되었다고 합니다. 데바라 양옆의 나무 조각상이 흥미롭습니다. 윗 몸은 여원하고 갈비뼈가 돌출되어 있으며 배만 메타볼릭 신체입니다. 흥미로운 데바라입니다. 게이트를 통과하면 돌길, 모서리가 깎여 발바닥이 흔들립니다. 역사의 무게를 느끼는 한 순간입니다. 오른쪽으로 펼쳐진 주축은 연회 본래로서, 세 줄의 기둥 바닥이 중앙 돌길을 둘러싸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면 7 겹의 탑 잔해, 기단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주변에는 이 역시 두 줄의 기둥 연회 잔해가 보입니다. 934 년 번개로 인한 대화재로 타버렸고 정상의 소바 부분이 땅에 떨어져 지면 깊숙이 거꾸로 쪼렷다고 합니다. 이 곳을 가득 채우고있는 주축은 절각의 일부입니다. 당시 절각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보십시오. 위용이 추억납니다. 정면의 약사당은 국가 지정 중요 문화재입니다. 장식은 매우 단순하고 소박하며, 동시대의 오사키 하치만구의 화려함과 대조를 이루는 센다이를 대표하는 타치야마 건축입니다. 안에는 황금 동으로 만든 약사여래종상이 본존으로 섰습니다. 결변에는 닛코우 보살종상, 월광 보살종상이 서 있습니다. 매년 2 월 11 일, 칠일당 수정회라 불리는 본존 개방 법요가

한국어 번역:

렌보 코우지

그리고 렌보 1 번거리 교차로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 렌보 거리를 걷습니다. 이곳은 무스코쿠 분지 사원을 부흥시킨 뒤에 24 개의 보자기가 연이어 있는 곳으로, 이것이 유래라고 합니다. 여기저기에서는 무냐무냐 거리 상점가의 표지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쇼와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상점가입니다. 오른쪽에는 얇은 기름 튀김이 아닌 얇은 튀김과 차린 도우 "텐카도"를 발견합니다! 이것 또한 예전에 느껴본 쇼와 시대의 맛입니다. 그 외에도 새로운 간판을 지나면 기계 시계 전문점 "시노다"와 같이 따뜻한 상점들이 나타납니다. 오른쪽에는 NTT 미야기 지사를 보고, 인도를 건너면 곧 도보로 지나간 도쿄 2 번거리 교차로가 나옵니다. 호텔은 곧입니다.

소요 시간의 대략적인 지침

호텔 ~ 아타고 다리: 30 분 (보통), 20 분 (건강함)

아타고 다리 ~ 히로세 다리: 25 분 (보통), 15 분 (건강함)

히로세 다리 ~ 카와라마치: 15 분 (보통), 10 분 (건강함)

카와라마치 ~ 무스코쿠 분지 사원: 45 분 (보통), 30 분 (건강함)

무스코쿠 분지 사원 ~ 크리넥스 스타디움 미야기: 15 분 (보통), 10 분 (건강함)

크리넥스 스타디움 미야기 ~ 마츠네 사원: 40 분 (보통), 25 분 (건강함)

마츠네 사원 ~ 호텔: 45 분 (보통), 30 분 (건강함)

전체 경로: 215 분 (보통), 140 분 (건강함)

※ 무스코쿠 분지 사원, 크리넥스 스타디움 미야기 등의 탐험 시간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분마치 가로세로 자유로운

국분마치 개요

여기서 언급하는 국분마치는 정절사거리, 히로세거리, 일반사 4-조 메 거리 아케이드 거리 및 반쓰이 거리로 둘러싸인 영역 내의 유흥가를 가리킵니다. 예전에는 무스코쿠 분지 사원의 보자기 앞 마을 주민들이 센다이의 성을 지을 때 집단 이주를 했으며, 에도 시대에는 오우쇼 거리에 위치한 상업 지역 및 전통 숙박 지역이었습니다. 미지신, 공군이 모두 오게 되자 유흥가의 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유흥가는 군사 시설의 이전과 함께 센다이 역 동쪽 출구, 스즈카오카 근처로 옮겨가고, 요리 노무와 한아자마기를 중심으로 한 유흥가로 변모했습니다. 40 년대의 고도 성장 시대에는 센다이 인구 증가와 함께 음식점 빌딩이 생겨나고 화랑계의 거리에서 일반인 유흥가로 변모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3000 개 이상의 음식점이 밀집한 동북쪽 최대의 유흥가입니다. 지진 후의 국분마치, 밤마다 길거리에서 꼬치, 주먹밥, 미소국 등의 불법 판매대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얻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도시 가스 복구가 되지 않는 동안 숯불, 프로판 가스, 카세트 코커, 그리고 보유한 식재료로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국분마치는 강인했습니다. 마침내 도달한 한군데. 주문은 한 사람당 2 개까지

가능하며, 테이크아웃 팩도 인기 있었습니다. 가까운 미래의 식량 위기를 시뮬레이션한 것 같은 어둠의 시장도 이제는 예전 일이지만, 국분마치는 빠르게 부흥하며 동북의 활력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동북에서 모이는 사람들의 에너지를 흡수하고있는 불야성 도시 국분마치를 한번 거닐어 봅시다.

제 기억상 한국어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텍스트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 이네가리 골목

이제 독특한 가게의 보물창고인 이네가리 골목으로 가보죠. 이네가리 골목을 히로세 도오리에서 정선사 도오리로 향해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이 골목은 단방향 도로이며, 밤 시간에는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문제 없을 것입니다. 먼저 입구 왼쪽에 있는 19 Fujibill 7층에 위치한, 내 기사면을 활성화하는 와인 바 "RB"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제 3 후지와라야 빌딩 1층에 있는 인기 있는 미실(板前) 요리 "하나이타"는 일요일에도 열려 있습니다. 이웃하는 1층의 인기 와인 바 "보누플러스"입니다. 제 5 요시오카야 빌딩 2층에는 소고기 꼬리 "아지레"가 있습니다. 호라야 양쪽으로 곧바로 들어가면 쿠니몬초 메뉴 한 잔, 24 시간 영업의 나가하마 라멘 "이치센카쿠"입니다. 더 나아가 왼쪽으로, FOX-B 빌딩 2층에 위치한 샌다이 1번 바로 불리는 "루 바 카와고에"도 일요일에 영업합니다. 다케아끼또리 길을 넘어가서 조금 더 나가면 왼쪽에 지모치 대표, 초인기 술집 "아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른쪽으로, 지역에서 매우 유명한 가게 "오던 산요시"를 보면 정선사 도오리에 이릅니다.

#### 쿠니몬초 도오리

다음은 주요 거리인 쿠니몬초 도오리입니다. 히로세 도오리에서 정선사 도오리로의 단방향 도로입니다. 이 길은 식사 장소보다는 집세가 높아 고급 클럽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위치한 2 Fujibill 1층에 위치한 세코 마마의 가게, 초인기 고급 클럽으로 개인 노래방도 있는 "피로포"입니다. 호라야 양쪽을 넘어가면 오른쪽에 YS21 빌딩 1층에 위치한 히메 라멘 뒤에는 마마의 가게, 작은 요리 "이와사키"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M-Road 빌딩 3층에는 전선 지점장, 지사장 가족이 주로 이용하는 초인기 고급 클럽 "페어리 오하라"입니다. 그 옆의 Peace 빌딩 5층에는 약간 나쁜 아저씨가 주로 이용하는 초인기 클럽 "노아"입니다. 왼쪽으로 이동하면 작지만 개성 있는 클럽 "일 소시오 돌체"가 있는 센 칸 프라자 빌딩 3층입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유명한 클럽 "와쿠와쿠"가 있는 홍영 빌딩 3층입니다. 같은 층에 합리적인 스낵 "노아르"와 개별 노래방도 있습니다. 옆의 마루이 플라자 빌딩 4층에는 또 다른 유명한 고급 클럽 "ORO ORO (오로 오로)"도 있습니다. 다케아끼또리 길을 건너면 담배점 "나가세"가 판매하는 시가르도 있으며, 오른쪽에는 클럽과 스낵이 모여 있는 그랑파레 빌딩, 왼쪽에는 라이온 빌딩 타이요칸을 보면 정선사 도오리로

이어집니다.

#### 정선사 도오리

정선사 도오리 모퉁이, 센다이 리치 호텔 쿠니몬초 2 층, "토토야"에서 독립한 무라카미 씨의 가게 "비스이 한조"입니다. 정선사 도오리를 서쪽으로 이동하면 정선사 파크 빌딩 1 층에, 이미 널리 알려진 초인기 클럽인 세코 마마의 가게 "라돈나"가 있습니다.

#### 제 3 협력 빌딩 도오리 (임시 명칭)

동서로의 가로 라인, 제 3 협력 빌딩 도오리 (임시 명칭)은 명곡 방향에서 서쪽에서의 단방향입니다. 택시를 이용할 때는 동이치반초의 대로에서 미즈코의 본관과 새관 (기존 141)

이용 중인 서비스의 문자 제한으로 인해 모든 내용을 한 번에 번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텍스트를 여러 부분으로 나눠서 번역하겠습니다.

**\*\*텍스트의 일부를 번역하겠습니다:\*\***

톨후쿠로 유요지 방면을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시작하면, 왼쪽에는 음료를 마시기 전에 기분 좋게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온천 사우나 "큐어 쿠니몬초"가 있으며, 제 3 협력 빌딩 도로 (임시 명칭) 근처의 왼쪽에는 세토 빌딩 1 층에 위치한 소고기 "즈카사" 본점이 있습니다.

피곤하셨나요? 이렇게 국분초의 세로 가로를 헤쳐 나갔습니다.

#### 예산 안내

- 이자카야: 6,000 ~ 7,000 엔
- 스낵: 약 8,000 엔
- 클럽: 12,000 ~ 18,000 엔 (병 대 별도)

**\*\*텍스트의 다음 일부를 번역하겠습니다:\*\***

#### 특히 MTB 로

#### 아오바야마 등반

톨 후쿠로 우치 고와치 캠퍼스를 지나 아오바야마를 등반합니다. 새들의 지저귀임과 햇살을 받으며 하이킹은 약간의 부담도 잊게 만드는 기분 좋은 것입니다. 오른쪽에는 도호쿠 대학 이과부, 자연사표본관 등의 멋진 건물군이 보입니다. 공학부 등이있는 아오바 캠퍼스와의 교차로를 건너면 왼쪽에 지하철 동서선 아오바야마 역의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곧 시야가

열리고 무언가 골프장이나 찻집의 흔적이 있습니다. 옛날의 센다이 컨트리 클럽 흔적입니다. 지모치로부터 이 시대를 슬퍼하며 단종 시키는 소리가 들릴 것 같습니다.

계속 진행하면 오른쪽에 아오바 료 산의 입구가 몇 군데 나타나고, 세기미사와까지의 하강이 최적의 산책로입니다. 여기는 MTB 진입 금지, 워킹의 놀이터입니다.

곰의 출몰에 주의하는 노란 표지판을 보면서 잠시 오르막길을 올라가면 왼쪽에 아오바야마 골프 연습장이 있으며, 여기가 정상이되어 하강합니다. 곧 정상에 버스 정류장 아오바다이, 로터리가 나옵니다.

아오바야마 주변은 비밀의 놀이터

곧장 나아가 가시오요미 역앞의 안내 표지판을 넘어,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테토리 다이가쿠 고라쿠의 평야가 나옵니다. 자동차로 방문하는 경우 이 표지판 앞과 공간 옆에 약간의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공장사와 놓인 산, 가시오토리 놓인 산이 펼쳐집니다. 히요도리 선, 카코 선, 츠바키 선... 새와 꽃 이름이 붙은 산책로가 18 개로, 산을

텍스트를 번역하겠습니다:

**\*\*접어들다\*\***

자, 이제 우회없이 아오바다이 버스 회전장을 우회전하고 오리타치를 향해 나아갑니다. 쌓아둔 위치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기분 좋은 다운힐. 그러나 곡선에 주의하십시오. 이 곳은 서쪽 도로의 보조 도로로 자동차 통행이 많습니다. 너무 빨리 달리면 아플 것입니다... 저와 같이 오른손 소지 무제한 복합골절을 경험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오른쪽에 있는 동북자동차도로를 바라보며 계속 내려갑니다. 내려간 후 터널을 왼쪽으로 돌아, 고로쿠에서 오리타치까지 이동합니다.

반산의 북면, 기슭에 퍼져있는 오리타치 5 세 지구는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오메지사 뒷길 근처, 퍼산설하이크의 하산로로, 나에게 익숙한 장소였지만, 높아진 부분이 산사태를 일으켰습니다. 기울어진 주택들이 무수히 많으며, 아직도 위험한 곳에 표시가... 주인을 잃고 외로이 서 있습니다. 미끄러져 내리고 균열이 있는 포장 도로, 몇 군데 쌓인 토물이 가슴 아프게 합니다.

지진 이외에도 심각한 피해가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빠른 회복과 재건을 바랄 뿐입니다.

**\*\*아이코 다이부즈\*\***

오리타치 교차로에서 국도 48 번을 따라서, 이효다시를 건너 좌회전하여 좁은 포장 도로를 따라 오게젠모리 남기슭을 빙둘러 나갑니다. 왼쪽으로, 나무 사이로 간신히 보이는 히로세강의 흐름이 상쾌합니다. 곧 이랜칸 오치아이에서 이즈미 방향으로 가는 대로와

합류합니다. 첫 번째 신호를 이즈미 방향이 아니라 비스듬하게 왼쪽으로 돌아, 국도 55 호선을 따라 아카사카 방향으로 언덕을 오릅니다.

직진이 표준입니다만, 중간에서 오른쪽에 주류 및 담배 가게가 보이면 비스듬하게 왼쪽으로, 스노우 연봉을 마주보며 다운힐을 즐깁니다. 마을 경치를 통과하며, 대나무 사이로 히로세강을 흘러다보며 다시 오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원래 길로 돌아와 아름다운 나무를 오른손에 두고 잠시 이동합니다. 곡선을 돌면 갑자기 왼쪽에 번개 막대를 달아놓은 이상한 불체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아이코 다이부즈입니다. 높이 15 미터, 아이코 언덕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자리잡고 있습니다. 측면, 한창 옛날 케이블 카를 떠올리게 하는 노란 모노레일 스타일의 운송 수단이 재미 있습니다. 이름은 남남호라고 합니다? 승차료는 1 회 10 엔입니다. 여기서 기도합시다.

### **\*\*소바 민가 발견\*\***

자, 이제 우회없이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어떻게든 빨간 갈대마을 입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 왼손으로 이즈미산을 바라보며 기분 좋은 다운힐을 즐깁니다. 아카사카 중앙 신호를 건너고 다음 신호인 아카사카 동 입구 교차로입니다. 여기서 왼손에 다토미야 '숨빈'을 발견하십시오! 점심시간으로 삼익합시다. 맛있는 참기름 국수소바로 위장의 부를 치료한 후에는 다시 다운힐. 직선이 어디까지나 계속됩니다. 페달을 밟지 않아도 가볍게 50km/h 이상이에요!

### **\*\*권현숲에서 남기성으로\*\***

앞에 펼쳐진 권현숲의 기슭을 향해 나아갑니다. 곧 T 자 교차로에 도달하여 오른쪽으로 돌아, 곧바로 왼쪽의 세븐 일레븐을 따라 권현숲의 북쪽을 다시 오릅니다. 좁은 포장 도로, 자동차

### **\*\*강렬한 다운힐, 도시로 향하기\*\***

자, 이제 빠지는 것도 적당히 하고 여기서부터가 절정입니다. 쌓아둔 위치 에너지를 한 번에 발산합니다. 센다이 시가이, 센다이 만을 내려다보며의 강렬한 다운힐. 제 추천 스팟입니다. 속도는 한 번에 올라가고, 자동차와 경쟁하면서 내려가십시오. 브레이크 포인트를 주의하세요. 국민 정수장을 지나 왼쪽으로 기울어지며, 센산선을 통과하고 신호를 왼쪽으로 돌고 길을 따라 내려갔을 때 오른쪽으로 돌아가십시오. 똑 바로 가면서, 중간에 좁은 도로를 따라 진행하고, 오사키 하치만구의 동쪽을 지나 국도 48 호선에 이릅니다. 여기까지 오면 호텔은 더 이상 멀지 않습니다.

센다이 시내로 향하고 어느 길로 돌아갈까요?

미야기현 미술관에 들릴까요? 낮에 코쿠비치를 통과해서 국분초를 뚫어보시겠어요? 현청 뒤의 "르 탕 리시"에서 빵을 사서 돌아올까요? 여행할 길 없이 약 33km 2 시간  
즐길 건 취향에 따라 다릅니다!

